

# Jeffrey Hudon 박사, 성서 고고학, 세션 24, 고고학과 사해 두루마리, 2부

© 2024 Jeffrey Hudon 및 Ted Hildebrandt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제프리 허돈 박사(Dr. Jeffrey Hudon)입니다. 이것은 세션 24, 고고학과 사해 두루마리, 2부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이 파워포인트에는 키르베트 쿨란 유적지가 발굴되고 부분적으로 복원된 후의 훌륭한 항공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사해의 서쪽 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현대적인 길이며 현장 위의 에이커 계곡까지 절벽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와디 쿨란은 이 와디를 거쳐 여기 이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시 에세네파나 사해 두루마리 공동체가 댐을 건설하여 물을 포획한 다음 수로를 통해 그 물을 현장의 다양한 저수지로 가져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발굴된 긴 벽이 있는데, 그들이 그 이유를 알아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남쪽 아래에는 샘인 에인 페쉬카(Ein Feshkha) 유적지가 있고 동시에 그곳에서 다른 활동과 구조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단지의 모퉁이는 탑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리고 이 탑은 그 모양과 스타일로 인해 반드시 두 번째 성전 시대에 건설된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에세네파나 사해 두루마리에 의해 건설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공동체이지만 실제로는 더 오래되고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가의 그림 또는 사이트 재구성입니다. 또한, 탑과 유적지의 다양한 건물 및 방은 기원전 1세기와 서기 1세기 동안 종교 공동체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시 남쪽을 바라보면 이곳에서는 사해 평야와 사해 해안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대에는, 심지어 현대에도 사해는 훨씬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해의 수위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사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개별적인 방이며 굴착자들과 결과적으로 현장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로 중 하나가 있는데, 이곳 절벽 아래 댐 뒤에 포획된 물에서 다양한 저수지, 웅덩이, 마이크베오(mikveot)로 물을 가져옵니다. 그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은 공동체가 의식적으로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목욕 의식이나 세례식입니다. 여기 mikveh의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 벽에 남아 있는 회반죽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트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논쟁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어 왔으며, 따라서 학자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키르베트 쿨란이 인근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와 관련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이스라엘 학자는 로마 역사가가 언급한 에세네 공동체가 실제로는 쿨란에 전혀 살지 않고 오히려 남쪽 엔게디에 살았다고 주장했는데, 로마 자료에 따르면 그 공동체는 엔게디 위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북쪽 방향이 아닌 고도로 해석했지만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장소와 동굴 사이에 연관성이 너무 많아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동굴과 두루마리와 연관성을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둘이 아주 아주 잘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점령당했습니다. 동굴에 묻혀 있는 사본 중 다수는 쿨란 공동체나 키르베(Kirbe)에 인접해 있습니다. 동굴에서 발견된 도자기 항아리는 다시 쿨란에서 발견된 도자기 항아리와 일치합니다.

아마도 강력한 증거는 아닐지 모르지만, 쿨란에는 서기관 활동, 도자기 생산, 공동 생활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내 생각에는 aen mikveot나 의식 목욕만큼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잉크병이 있었지만, 앞서 학자들은 테이블과 의자를 발견했다고 제안했는데, 그것들은 글을 쓰거나

복사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Pliny the Elder는 Essene 공동체가 사해 해안을 따라 살았다고 다시 언급합니다.

이것은 한 이스라엘 학자가 쿨란 위의 쿨란이 아닌 작은 감방이나 동굴에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루마리에 포함된 종파적 문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세네파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므로 로마 역사가와 그의 진술을 쿨란 공동체와 연결하는 것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쿨란이 일종의 엘리트 별장이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는 수도원의 미적 공동체에서 어울리지 않는 멋진 기둥 기반의 증거를 얻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실제로 교체되거나 그 일을 떠나기 전에 한동안 발굴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기둥 기반과 같은 엘리트 유형의 가구와 다시 건축물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 사항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쿨란은 요새 또는 캐러밴세라이입니다.

이것은 시카고 대학의 노먼 골베(Norman Golbe) 교수가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 이 탑이 있고 이것은 Glacis로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정착지의 나머지 부분은 방어 목적으로 지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그 타워를 보고 그것이 위협이 있을 경우 커뮤니티가 후퇴할 수 있는 일종의 보루, 유지 또는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유형에 맞지 않는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요새에 대한 아이디어나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종류의 군사적 목적에 대한 아이디어.

더욱이 신약 시대에 쿨란 유적지는 사해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 근처에 있다는 사실 외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이곳은 아마도 말년에 유다 왕국의 국경 초소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7세기와 6세기 초에는 유다의 국경이 사해를 따라 요단 계곡을 따라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나 그 이전에는 꼭 국경이 아니었지만 이때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후기 군주제 동안 국경 초소나 군사 시설로 이곳이 점유되었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는 두루마리와 두루마리 조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몇몇 잉크병은 주둔군 기지 이상의 서기관 활동을 입증합니다. 쿨란에는 약간 동쪽에 묘지가 있었는데, 1,200개의 무덤이 확인되었고, 그 중 몇 개가 발굴되었으나 이는 전쟁의 희생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연구되고 관찰된 무덤과 시체에서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 해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DeVos는 쿨란을 발굴하면서 그가 두루마리 제작을 위한 문서실 또는 사본 센터라고 부르는 곳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여기에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테이블과 탁상이 사용되었으며, 그 중 일부가 식별되고 발굴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잉크병이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골동품 시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청동상입니다. 일부는 도자기였으며 이는 확실히 해당 장소를 두루마리와 연관시키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것들은 반드시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플로리다 출신의 고고학자인 제임스 스트레인지가 두루마리가 아닌 오스트라콘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프랭크 무어 크로스와 에스더 에셀이 함께 연구한 오스트라콘이 발견되었을 때 상당히 흥분이 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은 또 다른 이스라엘 비평가인 Ada Yardeni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대본은 두루마리에서 볼 수 있는 숙련된 필사자의 손과 실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불행하게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비록 이것이 중요한 발견이긴 하지만요.

앞서 Deveaux와 그의 팀이 Khirbet Qumran 유적지를 발굴할 때 발굴 작업을 돕기 위해 현지 베두인족의 도움을 받아 수작업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베두인족은 스윙 교대와 묘지 교대로 바뀌었고 현장 뒤의 테라스를 따라 동굴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유명한 곳은 4번 동굴로, 그곳에서 모광맥이 발견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두루마리는 로마인들이 그 장소에 들어오거나 접근했다고 가정하기 직전에 4번 동굴에 무작정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굴의 90%가 불법적이고 부적절하게 발굴된 후에야 직원이나 Deveaux와 그의 직원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은 동굴의 가장 낮은 층만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중한 발견물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두루마리는 다시 꼼직한 모양이었으며, 박쥐 배설물과 소변, 그리고 2,000년의 먼지로 인해 단편적이었습니다.

동굴의 천장은 계속해서 무너졌고 두루마리 위에는 다양한 수준의 잔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곳은 공동체의 두루마리를 위한 동굴의 모퉁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해 두루마리와 내쉬 파피루스라는 사본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파이움의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기 수십 년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르 요세프(Bar Yosef)라는 운하를 통해 나일강과 연결된 나일강 계곡 서쪽의 늪지대입니다. 성경에는 요셉과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름이 훨씬 나중에 나온 것이어서 실제로는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893년에 발견되었으며, 십계명과 쉘마를 약간 축약한 형태이다. 올브라이트는 이것을 썼고 1937년에 출판했습니다.

그는 본문, 글자, 철자법을 통해 기원전 150년에서 100년 사이의 연대를 추정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 사본은 가장 오래된 성서 본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사해 두루마리의 대본과 비교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많은 작업은 Frank Moore Cross가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이 초기 내쉬 파피루스에 기초하여 이 사해 두루마리 텍스트의 연대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이는 내쉬 파피루스와 동시대이거나 아마도 그보다 더 이전일 것입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제프리 허돈 박사(Dr. Jeffrey Hudon)입니다. 세션 24, 고고학과 사해 두루마리, 2부입니다.